



분석심리학 이야기

Stories on Analytical Psychology

이부영 지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안다.

그러나 콤플렉스가 그를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집문당

무의식에 대하여

무의식은 살아 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지구 자체가 움직인다고 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기존의 물리학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엎는 발견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에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그것이 정신적 재앙의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은 인간과 그 마음의 실체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으로 가히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견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욕구나 충동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감히 나에게, 내가 평생 싫어하는 요소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나.’



웅의 불링겐 탑에 연한 호숫가 갈대숲

사람들은 화를 냈고 독일대학의 정신과 교수들은 빈의 '유대인' 신경학자 프로이트의 '이상한 학설'을 애써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무의식설'을 머리를 굴려서 이론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증명했다. 팔다리가 마비되고 통각을 못 느끼는 '히스테리' 환자에게 최면을 걸어 잊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더니 운동과 감각마비를 깨끗이 고칠 수 있었던 것이다. 잊었던 과거의 기억은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와 결부되어 있었다. 그것이 의식에서 떨어져 나가 망각 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다가 병을 일으킨 불씨가 된 것이다. 프로이트는 괴로운 경험, 현실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충동과 욕구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억압된

다고 보았다. 잊어버린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남아서 콤플렉스를 형성하여, 마치 다른 나라로 도망간 정치인들이 망명정부를 만들어 자기들을 내쫓은 정권을 무너뜨려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의식 표면에 나오기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의식에 억압된 충동은 여러 다른 곳으로 옮겨가 힘을 발휘하여 엉뚱한 데서 지장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말이 헛나간다고든가 보기 싫은 사람과의 중요한 약속을 까맣게 잊게 한다든가 하는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운동을 마비시키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속삭이는 상태가 된다고든가 하는 해리성 전환장애(‘히스테리증’)라는 노이로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 경우 신체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리하여 프로이트는 ‘의식’ 이외에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의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인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프로이트의 초기 학설에서는 무의식의 핵심이 억압된 성적 충동, 그것도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근친상간(近親相姦)의 욕구라고 하였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를 떠난 그의 동료이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학설을 내세워 무의식의 개념을 수정하거나 확대했다. 프로이트 자신도 후기에는 자기의 학설을 많이 수정했지만 성욕설의 중요성은 끝까지 견지하였다.

프로이트가 다룬 환자들, 체면에 급급한 허영심 많은 당시 빈의 상류층 환자들의 무의식에는 사실 성적 욕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학설도 수정되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설을 근본적으로 확대, 심화시킨 사람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 Carl Gustav Jung이다.

무의식은 창조의 샘이다

C. G. 융은 무의식이 의식을 낳은 모체(母體)이자 기본 토대라고 보았다. 그리고 억압된 충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창조의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무의식에 대한 융의 생각은 프로이트의 학설을 확대하고 심화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은 창조의 샘이라는 것,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의 의식의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살아 있는 생명 그 자체이다. 우리가 모르는 마음 깊숙이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곧 부처님이며, 사람

속에 하늘이 있으며(人乃天),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동서양 종교의 인간관과 매우 통하는 바가 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대우주를 본뜬 소우주라는 동양철학뿐 아니라 중세 이전의 서양철학자의 인간관과도 맥을 같이한다.

무의식은 또 하나의 우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주를 쉽게 볼 수 없다. 그것은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더구나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아는 마음만이 유일한 정신이라고 믿는 사람 앞에서 무의식에 이르는 길은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의 마음 너머에 '나'를 넘어선 어떤 커다란 의지가 존재한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세계의 존재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초월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세계가 우리의 마음속보다는 어디 하늘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의식'은 깊고 넓다

음에 의하면 무의식無意識(The unconscious, das Unbewußte)이란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마음의 세계이다. 나의 마음은 무한히 크다. 나는 그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알고 있다. 우리가 '나(자아 自我)Ich, Ego'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마음을 의식意識(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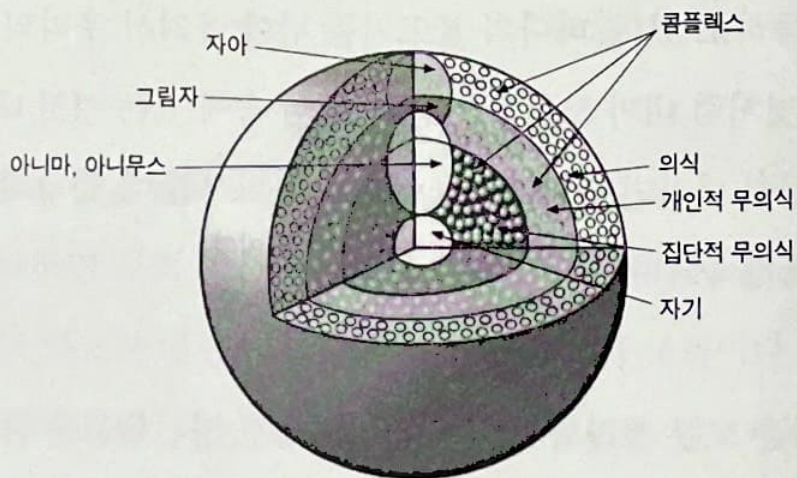
Bewußtsein, the consciousness)이라 한다. 의식하고 있는 마음 너머에 무의식이 있다. 그것은 의식의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

바닷속에 많은 생물이 살고 있듯이 무의식에도 많은 심리적 요소들이 활동하고 있다. 바다의 물고기를 낚아 올려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마음,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 나가면서 그것들을 의식에 동화시킬 때, 우리의 의식은 확대되고 성숙된다.

무의식은 모든 정신활동의 샘이고 다양한 정신활동을 하게 하는 많은 씨앗을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대로 무의식을 창

조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의식을 존중하고 깊이 살펴서 무의식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무의식은 우리의 그러한 노력에 응답한다. 우리가 잠잘 때 대뇌피질은 쉬고 있으나 자율신경계는 계속 활동하면서 생리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무의식 또한 나의 의식 활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식은 나의 의식면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고 나아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숨은 성격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꿈은 무의식의 그러한 메시지를 상징적인 언어로 전해주는 통로이다. 그러나 그 언어는 너무나 특이해서 그것을 해독하려면 장기간의 훈련을 쌓아야 하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정말 무의식적이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마음의 구조

무의식을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이 의식의 내용으로 번역될 때에 국한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융의 개척자적인 발견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검증한 바에 따라 무의식에 어떤 상징들이 있고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심리학설에 의하면 무의식은 최소한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적 무의식個人的 無意識, das persönliche Unbewußte, The personal unconscious과 집단적 무의식集團的 無意識, das kollektive Unbewußte, the collective unconscious 그리고 더 깊은 층의 충동적 측면, 결코 의식될 수 없으며, 정신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체도 아닌 층을 가정하는데 이것을 '정신 비슷한 기능' psychoid fun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적 무의식은 그 개인이 태어난 뒤 살아가면서 경험한 개인적 경험내용이 무의식에 억압되거나 잊혀져서 생긴 마음의 심층인데, 그 내용은 개인의 삶의 특성을 나타낸다. 집단적 무의식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이미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 갖추어져 있고 의식생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마음의 심층이다.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 무의식'이라 부른다.

여러분은 꿈에서 아는 사람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혹은 늘 보는 건물에서 사무를 보거나 길거리를 거닌다. 일상생활과 비슷한

이런 꿈은 개인적 무의식에서 나왔거나 의식의 조각들이다.

그러나 때론 꿈에서 엄청나게 큰 동물에 먹힐 뻔하거나 괴물에 쫓기거나 도저히 현실생활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환상적인 여인, 영웅상, 하얀 산신령, 혹은 신화나 민담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한 형상들을 만나고 기괴한 사건들을 겪는다. 이런 꿈은 집단적 무의식을 표현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처음 무의식을 정의할 때 주장한 의식에서 억압된 성적 욕구 이외에 의식에서 배제된 여러 가지 다른 충동, 단순히 잊어버린 것, 그 자극이 미미하여 의식까지 다다르지 못한 심리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집단적 무의식의 존재나 무의식의 창조적 자율성에 관한 통찰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개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신프로이트학파에 속하는 에리히 프롬은 융의 집단적 무의식과 원형 학설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 상징universal symbols이라는 개념을 제창하였다.

무의식에 대한 오해와 의심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호기심이 많고 나이브한 청년이 나에게 몇 번 분석을 받더니 이런 말을 했다. “음학과에서는 꿈

을 좋게 보는군요.” 프로이트학과처럼 근친상간의 욕구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을까. 얼마 지나서 그의 문제가 꿈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이런 저런 구실을 대고 황망히 떠나버렸다. 무의식이 창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의식이 아름답고 멋진 이미지만 내보내지는 않는다. 파괴와 희생이 없는 창조는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무의식을 보는 일은 괴로운 일이며 그 괴로움을 통하여 통찰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든든하게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 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도 처음 분석을 받을 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취리히 융 연구소 소장 프란츠 리클린에게 분석을 받을 때의 일이다. 독일어가 짧아 찢찢매면서 독일어로 번역한 꿈을 타이핑해 가서 분석을 받는데 꿈에 대해서 분석가가 해석해 주는 내용은 내가 몰랐던 측면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던 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례하게도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물었다. 당신네 서양사람 들은 왜 의식, 무의식을 나누는 것이냐고. 리클린 박사가 나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했으나 나는 별로 공감이가 지 않았다. 아마도 그 당시 나의 독일어 실력으로는 내가 알아들은 이야기만 이해하였을 것이고 리클린 박사도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여간 리클린 박사에게 150시간의 교육분석을 받은 끝에 폰 프란츠 박사로부터 분석을 받게 되면서 나는 차츰 ‘무의

식이 정말 존재한다'는 통찰을 갖게 되었다.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꿈은 정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자기의 꿈을 적어서 분석가에게 가서 그 뜻을 찾아보는 개인분석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무의식이 뜻이 있고 없고 하는 말을 하려면 장기간 스스로 경험해보아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나 그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전문과정 연구원에게서 받을 것을 권한다. 비전문가끼리의 꿈에 관한 대화는 서로의 콤플렉스를 강화시킬 뿐 자기 자신의 통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단에서 꿈을 토의하는 것 또한 지적인 놀이 이외의 아무런 득이 없다. 무의식은 정신적인 위기에 처해서 진정으로 무의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며 그 뜻은 개인과 개인의 진지한 대화 속에서 드러난다. 호기심이나 지적인 관심만으로는 무의식의 보배를 결코 얻을 수 없다.